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4. 8.(화) 14:00 < 4.9.(수) 조간 > 배포 2025. 4. 8.(화)

글로벌사우스 신흥국, 북부아프리카 선도국 모로코와 산업협력 가속화

- 산업부 장관, 모로코 산업통상부 장관 방한 계기 양국 산업통상장관 회담 개최
- 현대로템 수주를 이어, 2030 모로코 월드컵 투자에 우리기업 진출 기대
- 양국간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및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추진 제안

우리나라와 모로코 간 산업 협력이 가속화되고 2030년 FIFA 월드컵* 개최 대비 인프라 투자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8.(화) 오후 서울(포시즌스 호텔)에서 리아드 메주르(Ryad Mezzour) 모로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모로코 산업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협력 방안과 통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1930년 첫 대회 이후 100주년을 기념하여 아프리카(모로코), 유럽(스페인·포르투갈), 남미(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3개 대륙 6개국이 함께 개최

모로코는 ▲유럽-중동-아프리카를 잇는 교두보적 위치, ▲인구·핵심광물(인광석 세계매장량 1위)·공급망에서의 성장 잠재력, ▲EU·미국 포함 55개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등 다수의 강점을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대표 신흥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우리 기업들도 모로코 진출을 확대 중으로 현대로템이 올해 2월 모로코 철도청으로부터 역대 최대규모인 2.2조원 규모의 철도 전동차 사업을 수주하였고,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 현지(모로코) 생산 + 제3국(유럽) 수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날 회담은 국제 통상질서 격변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 확대가 긴요해진 시점에서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가진다. 메주르 장관은 모로코가 미국·EU와 FTA를 모두 체결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임을 언급하면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진출에 유리한 투자 허브로서 각광받

고 있음을 설명하고, 2030 월드컵 대비 인프라 확충과 자국내 산업발전을 위해 한국 기업들과의 투자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첨단기술 역량과 모로코의 지역 생산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결합한다면 보호무역 확산,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양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반성장하는 데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향후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작년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진전을 보인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이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관련 협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것을 제안하고, EPA 체결·발효에 앞서 통상 현안을 긴밀히 논의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으로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TIPF)를 조기에 체결하여 향후 양국 간 산업협력을 가속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table>
<tr><td rowspan="4">담당 부서</td><td rowspan="2">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td><td>책임자</td><td>과 장</td><td>이중엽 (044-203-5720)</td></tr>
<tr><td>담당자</td><td>사무관</td><td>이덕미 (044-203-5727)</td></tr>
<tr><td rowspan="2">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td><td>책임자</td><td>과 장</td><td>박정미 (044-203-5740)</td></tr>
<tr><td>담당자</td><td>사무관</td><td>우희승 (044-203-5742)</td></tr>
</table>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